

무용가 최승희의 스타일 연구

박애란* · 박혜원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Style of Dancer Choi Seung-hee

Park Aelan* · Park Hyewon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modernization and the new woman's life centered around a new woman and a dancer, Choi Seung-hee and its style.

The study was carried out centered around analysis of content through photos of 179 pieces and a documentary DVD.

We analyzed collected photo data and came to know various bobbed hair style, clear makeup style and Art-Deco fashion. Accordingly, Choi Seung-hee has external appearance as a new woman and we came to know she is a representative woman in Korea.

Because she crossed over into North Korea, the study has not been actively carried out but if we consider Choi Seung-hee's influence over the dance world, her women's leader and fashion roles at that age, it is considered that the study on Choi Seung-hee's external style has a significant meaning.

Key Words : New Woman(신여성), Dancer Choi, Seung-hee(무용가 최승희), Modern Girl (모던 걸), Style(스타일)

I. 서론

우리나라는 1876년 개항 이후 근대화 초기단계인 한일합방 시기는 일본의 지배전략에 종속되어가는 정치·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다. 1910년 국권을

완전히 잃은 후 일본을 통해 수입된 서구의 문물은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일본의 문화 역사의 주입 및 실업교육의 강화로 나타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Corresponding author: Park Aelan, Tel.+82-11-581-9632, FAX.+82-55-213-2724
E-mail: parkal01@hanmail.net

‘신여성’이라 하는 신교육을 받은 지식여성계층이 일정하게 형성되었고, 여성존중주의, 기독교의 보급으로 여성교육의 필요성이 제창되면서 사회적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부터 여성사회는 커다란 일대 전환기를 갖게 된다. ‘구(舊)여성’에 대립되는 개념의 신(新)여성’은 1914년에 일어난 1차 세계 대전과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전후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¹⁾.

일찍이 일본 유학과 자신들의 체험을 통하여 전통사회에 대한 비판의 눈을 가졌던 이들의 사상은 주위환경의 제약, 주체적 조건의 미성숙 등으로 여성해방을 연애의 자유 혹은 남과 여의 대립 개념으로만 파악할 뿐 자신의 문제를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관련지어 이념적으로 체계화 시킬 수 없었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 신여성들은 여류명사로서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직업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보였던 예술적 여성들이었다²⁾.

따라서 전통사회에서 근대화를 넘어가는 시기였던 개화기는 전반적인 가치관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며 동양권을 벗어나 서양문화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시기에 있어서 많은 변화로 가져오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화기의 신여성인 무용가 최승희를 중심으로 근대화의 사회적·문화적인 배경과 신여성으로서의 삶을 고찰하고 그의 스타일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최승희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무용학³⁾, 여성학⁴⁾, 민속학⁵⁾ 측면에서 연구되어져 왔으나 의류학에서의 연구는 무대의상⁶⁾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왔다. 최승희가 월북하였기에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오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무용계에서의 최승희의 영향력, 당 시대의 여성 리더, 패션 리더로서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최승희의 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방법은 주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문헌자료와 ‘(사)무용가최승희기념사업회(<http://www.accf.or.kr>) 및 강원도홍천과무용가최승희의사랑모임(<http://cafe.daum.net/hcloveart>)’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시각 자료로는 국내외 저서에 기록된 사진 총179점과 다큐멘터리 DVD를 통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II. 신여성으로서의 최승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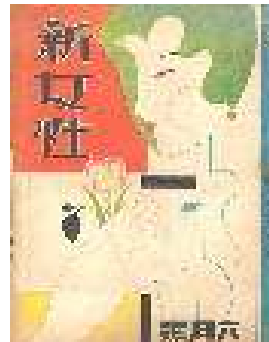
1. 신여성 출현

1920-1930년대의 신여성을 직접적으로 출현하도록 영향을 미친 나라는 일본이었다. 일본에서 사용되었던 ‘신부인(新婦人)’이라는 용어는 원래 ‘New Woman’에서 나온 말이다. 1886년 9월에 창간한 <일본신부인(日本 新婦人)>의 표지에는 “The New Woman / I am the Mother / of Civilization”⁷⁾이란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때 “The New Woman”은 ‘신부인’으로 번역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여성⁸⁾이란 말은 <그림 1>⁹⁾의 1920년 여성지 ‘신여자’(1920. 3월창간호 시작 제4호로 폐간, 김일엽 주간)와 <그림 2>¹⁰⁾의 여성지 ‘신여성’ (개벽사, 1923~1934)이 창간되면서 유행하기 시작 된 것으로 개화기 때, 신식 교육을 받은 여자를 이르던 말이다¹¹⁾.



<그림 1> 신여자 1920년 3월 창간호 표지
-이옥진, p.54.



<그림 2> 신여성 잡지 표지
-<http://www.kmpa.or.kr/museum/>

2. 신여성의 외모적 특징

초기의 신여성은 새로운 시대의 유일한 선각자, 창작자로 숭배되었고 신여성에 대한 관심은 1920년대 중반에 절정에 달했다. 이는 근대에 대한 열렬한 동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신여성은 곧 근대화, 서구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신여성들이 사회적인 관심을 끈 이유는 외양이 전통적인 여성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¹²⁾. 또한 신여성은 외모에서도 특징적으로 구별이 되었다

신여성은 성이 문란한 여성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성의 해방을 주장하였고, 1920년대가 되면서 신여성들이 선호한 이상적 신체는 양감보다는 위아래로 늘씬하게 뽀은 체형이었다¹³⁾.

신여성, 모던 걸(Modern girl, モダンガール)¹⁴⁾을 모단(毛斷)으로 표현할 정도로 단발은 당시 여성에게 구시대의 의식을 버리고 새로운 문명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단발이 단순한 유행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근대화의 과정에서 자아의 정체성에서 갖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20, 1930년대에 사회의 주목을 끌기 시작한 신여성들로는 주로 해외 유학파로 동경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사회활동을 하는 여류명사 나혜석(羅蕙錫, 1896~1948), 김원주(金元周, 일명: 김일엽, 1896~1971), 김명순(金明順, 호는 탄실(彈實), 1896~1951)은 신여성의 상징적인 존재였다. “신여자 선

언”¹⁵⁾을 통해 종래의 한국여성들이 남성들의 부당한 억압으로 남녀평등 사상에 기초를 둔 새로운 양성관계의 수립을 주장하였다¹⁶⁾.

이처럼 신여성의 외모적인 특징은 단발, 양장, 모자, 안경, 구두 등에서 잘 나타나는데 신여성 중 최초의 단발을 한 사람은 1922년 6월 서대문의 정축강습소에서 기생 출신이었다가 나중에 사회주의자로 변신한 강향란이었다¹⁷⁾.

당시의 단발은 여성들에게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사회에 대한 도전이면서 반항이었다. 이런 근대성의 경향은 여성의 패션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복식에 대한 신여성의 관심은 훨씬 섬세하고 복잡하며 전통 복식의 단점을 극복해야 할 요소를 단발과 연결되어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었다.

의복 개량은 생활의 편리함,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다듬이질에서 벗어나고 솜옷을 만드는 일에서 놓여나기 위해 겹옷이 유행되었고 흰옷이 줄어들었다. 또한 모자는 서양 풍속을 추종하려는 뜻보다는 방한과 위생 때문이었다.

안경은 공부하는 여성의 상징으로 일본에서 유학한 김마리아(金瑪利亞, 1891~1944) <그림 3>¹⁸⁾, 황에스터(1892~1971, 일명: 애덕(愛德), 애시덕(愛施德)) <그림 4>¹⁹⁾, 김일엽(金一葉, 본명: 김원주, 1896~1971) <그림 5>²⁰⁾ 등은 모두 안경을 착용하여 지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구두는 신여성들의



<그림 3> 김마리아

-<http://search.nate.com/search/all.html?q=s&sc=&afc=&j=&thr=frs&q=%B1%E8%B8%B6%B8%AE%BE%C6>



<그림 4> 황에스터

-<http://search.nate.com/search/all.html?q=A&s=&tq=&sc=&afc=&thr=sbus&q=%C8%B2%BF%A1%BD%BA%C5%CD>



<그림 5> 김일엽

-<http://koreandb.nate.com/history/people/detail?sn=8321>

필수 장신구로서 하얀 저고리에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검정 치마를 입은 여성은 고무신이 아닌 구두를 신고 있었다²¹⁾.

아울러 액세서리에도 관심이 많아 핸드 백과 양산이 인기를 끌었고 일본 유학이나 구미 외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의해 솔과 스카프와 허리선을 강조하는 의복이 유행하면서 벨트가 패션의 소품이 되었다²²⁾.

이처럼 근대적 신여성이란 ‘지난 간 날의 부인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것, 이전과는 다른 아름다움을 갖는다는 것이다²³⁾. 외모 중에서도 첫 번째는 얼굴이었으며, 그 다음은 신체이고, 근대적인 외모를 갖추는 것을 통해서 근대 여성이 가능하다는 인식은 여성의 아름다움에 관한 새로운 개념의 출현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쌍꺼풀이 진 큰 눈과 높은 코와 백색 피부를 가진 서구화된 외모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났고²⁴⁾, 근대 여성을 드러내는 유행의 시작은 치마나 저고리 차림에서 벗어나 서구적인 모자나 하이힐 등으로 치장을 하는 모습이었다. 즉 자본주의 문화 파급이 급부상하는 신여성을 중심으로 스스로 자신을 꾸밈으로서 적극적이고 당당한 여성상의 반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여성의 외모적 특징은 구여성에 비교하여 매우 달랐다. 신여성 대한 사회적 기대치와 역할 수행에 대한 신여성의 사회적 인식의 평가는 우리 사회의 가치와 미적 요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3. 최승희의 생애와 신여성으로서의 삶

무용가 최승희(崔承禧, 1911~1969)는 1911년 11월 24일 강원도 홍천의 아버지 최준현과 어머니 박용자의 2남 2녀의 막내 딸로 태어났다.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동경음악학교와 경성사범학교의 진학을 희망했으나 연령 미달로 입학이 취소되어 크나큰 좌절을 두 차례나 겪어야 했다²⁵⁾.

1926년 3월 21일부터 3일간 경성공회당에서 이시이 바쿠(石井漢; 18861~1962)의 무용발표회가 열리고 있었고, 이 때 최승희는 큰오빠인 최승일과 함께 춤 공연을 관람하게 된다²⁶⁾. 이 계기로 최승희의 신체조건을 보고 훌륭한 무용가가 될 수 있겠다고 직

감한 이시이 선생은 연구생으로 받아들였다. 일본으로 유학 후 신무용과 한국전통무용을 접목하여 가장 인기가 높은 무용가로 성공하였을 뿐 만 아니라, 성악곡 음반을 취입하고 화장품과 약품, 학용품, 과자류 등의 모델로도 활동하였다. 최승희의 사진이 인쇄된 우편엽서와 브로마이드가 발행되었고, 최승희는 서구의 개방적 이미지로 새로운 현대 여성의 표본으로 일본 사회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²⁷⁾.

1936년 제3회 신작 무용 발표회로 선풍적인 인기를 획득한 최승희는 세계무대의 도약을 꿈꾸게 되었다. 해외공연지로서 미국을 선두로 유럽으로도 진출하여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영국, 스페인에서 공연하였으며 중남미를 포함하여 약 150회에 걸치는 해외 공연을 하였다²⁸⁾.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았던 이 기록은 최승희의 독보적인 위치를 그대로 대변해 준다.

1946년 우리나라로 귀국 후 무용계의 건설과 무용극 양식을 창조하여 하였으나 친일 경력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고 1946년 7월 남편 안막(1910~?, 본명: 安彌承)과 월북하여 평양에서 최승희무용연구소를 열었다. 북한의 주요 공식 행사와 소련과 동유럽 등 해외 파견 공연에서 대표적 안무가로 활동하다가²⁹⁾, 1958년 남편이 숙청된 후 계급 의식에서 벗어난 부로조아적 창작 작품으로 당의 정책을 의도적으로 기피한다는 누명을 쓰고 숙청되어 1969년 8월 8일 사망하게 된다.³⁰⁾

III. 최승희 스타일과 그 의미

모던 걸 최승희는 신장 165cm의 장신의 체격과 체중 51kg의 타고난 미모와 체격 조건으로³¹⁾ 주목을 받았다. 당시 최승희는 춤 그 자체 뿐 아니라 미모가 빼어나 일본의 미인대회에서 4등으로 선발되기도 했다 <그림 6>³²⁾.

1930년대 신여성들은 여성문화를 지각하고, 특히 여성지의 표지에 등장한 단발머리를 한 최승희의 표정 연기는 얼굴각도를 측면으로 45° 정도로 틀어서 비스듬히 시선을 처리하면서 애교와 여성스러움을 표현하는 광고의 모습은 그녀의 헤어스타일과 메이



<그림 6> 일본을 대표하는 미인에 선발된 최승희, 아랫줄 왼쪽
- 최승희崔承晿 격동의 시대를 살다간 무용가의 생애와 예술, p.18.



<그림 7> 광고의 모델, 최승희
- 최승희崔承晿 격동의 시대를 살다간 무용가의 생애와 예술, p.304.



<그림 8> 광고의 모델, 최승희
- 최승희崔承晿 격동의 시대를 살다간 무용가의 생애와 예술, p.305

크 업, 패션 등이 일반 여성과 대중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림 7>³³⁾, <그림 8>³⁴⁾에서 보듯이 수줍은 듯한 여성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얼굴의 표정과 상반신만을 크로즈업한 상태로 어깨에 손을 모으고 가슴 앞에 한 손을 올려놓은 포즈는 풍만한 육체의 아름다운 에로티시즘의 요염함을 표현하고 있다.

당시로서 파격적인 노출적인 장면으로서 근대화와 함께 들어온 서구의 대중문화는 유성 영화 시대의 개막으로 모던 걸의 중심에 있었던 그녀를 대중문화와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는 상품의 미인 아이콘(icon)으로 생산해 내었다

다음의 글은 최승희 제자 김백봉선생의 대담의 내용이다.

“ ■ 최승희 선생님은 메이크업에 상당히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김: 눈썹이 세계 정도 밖에 안 붙어 있는데 자연스럽게 ‘씩’ 본인이 그리시는 거예요. 선생님 아버님이 참 잘 생기셨어요. 골격도 좋으셨죠. 그걸 닮으신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온 저한테 “화장 해봐라 하시고는 눈감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찍어 발라 드렸어요. 한참 있다가 거울을 가져와서 보시더니 “이게 뭐니, 기껏 발라 준다는 게 이렇게 헛가루처럼 발라 났니” 하고 화를 내셨는데,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도 안 해주시고 무조건 하라고 하셨죠.

■ 얼굴 어느 부분에 특히 분장을 했는지, 특징이 있었습니까?

김: 그 분이 턱밑이라든가 코가 작으셨어요. 그런데 선이 참 좋아요. 무대에서 춤 출 때 감정 처리, 얼굴 표정이 손끝 발끝 움직이는 것 이상으로 완전했죠. 보통 분장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신 편이에요. 본인 실력이 대단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한국의 전례적인 귀태(貴態)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그 사람이 최승희인 줄 모르는 데도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올리면 차가 와서 멈추고 운전수가 모자를 벗고 내려와서 문을 열어 주고 그랬지요³⁵⁾.”

이처럼 무용가 최승희는 외모적으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아름다움이나 용모와 몸 관리가 철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패션 감각도 센스가 있어 여성스런 섬세함과 개성적이고 한국적 멋과 서구적인 멋을 겸비한 멋쟁이 자질이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1> 아르데코 풍의 직선형 원피스
- FASHION SOURCE BOOK, p.53.



<그림 9-2> 아르데코 풍의 원피스와 모자
- FASHION SOURCE BOOK, p.55.



<그림 9-3> 아르데코 풍의 원피스와 기하학적 패턴
- 20th Century, p.69.

또한 그녀가 착용하고 있는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패션의 유형은 당시 세계 모드계의 유행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서구는 예술이나 건축은 기능주의와 장식예술 분야인 아르데코(Art Deco)³⁶⁾풍의 양식이 지배적이었다. 패션에 있어서도 아르데코 풍의 여성복은 인체의 곡선미를 부각시키는 실루엣이나 곡선적인 문양 대신에 기능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직선적이며 원통형의 의복과 기하학적인 패턴이 서구에서는 애용되고 있었다<그림 9-1~3>³⁷⁾³⁸⁾³⁹⁾.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 순회공연을 가졌던 최승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세계적인 모드계의 유행을 접하게 되었고 <그림 10>⁴⁰⁾는 특유의 뛰어난 감각과 센스의 소유자였던 최승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와 같이 만능 인터테이너적 기질을 소유한 그녀는 세계순회공연에서 코리안 댄스(Korean dancer)로 한국의 고유 전통 의상의 멋과 오리엔탈리즘의 신비감을 세계에 널리 떨침으로서 우리민족의 위치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문화예술사절단의 역할을 하였다<그림 11>⁴¹⁾ · <그림 12>⁴²⁾.

이상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여 최승희의 스타일 특징을 단발 스타일, 눈과 입술을 강조한 메이크업, 아르데코 풍의 패션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단발 스타일

최승희의 헤어 스타일은 사)무용가최승희기념사업회(<http://www.accf.or.kr>) 및 강원도홍천과무용가최승희의사랑모임(<http://cafe.daum.net/hcloveart>)에서 수집된 자료 중 대표적인 단발 스타일 6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13-1>⁴³⁾의 최승희의 단발은 직선의 심플함을 최대한 살려 장식이 없는 깔끔한 형태로 작은 실핀으로 한쪽을 고정 시켜 단아하면서 조각한 듯한 입체감과 무게감이 절묘하게 느껴지는 원 렉스(One length) 스타일을 하고 있다. <그림 13-2>⁴⁴⁾은 옆가리마를 타고 정발제를 발라서 무용동작시 모발이 흐트러지지 않게 최대한 얼굴 라인에 밀착을 시켜 광택과 윤기나는 표면감을 통해 세련된 조형성을 표현한 스타일로서 직선의 기하적인 단순함과 굳건함, 냉철함이 표출되는 듯한 도전적인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0> 1938년 로스엔젤레스를 방문,
월튼극장에서 공연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http://www.accf.or.kr>



<그림 11> 보살춤
-<http://cafe.daum.net/hcloveart>



<그림 12> 초립동
-<http://cafe.daum.net/hcloveart>



<그림 13-1> 조각한 듯한 입체감과
왼쪽으로 고정시킨 스타일
-<http://cafe.daum.net/hcloveart>



<그림 13-2> 정발제를 발라
조형성을 표현한 스타일
-<http://cafe.daum.net/hcloveart>



<그림 13-3>
이사도라 형태의 스타일
-<http://cafe.daum.net/hcloveart>



<그림 13-4> 험 라인을 감춘 스타일
-<http://cafe.daum.net/hcloveart>



<그림 13-5>
웨이브 넣어 변화를 준 스타일
-<http://cafe.daum.net/hcloveart>



<그림 13-6>
포워드 앤딩 마무리 한 스타일
-<http://cafe.daum.net/hcloveart>

<그림 13-1~6> 최승희의 단발 스타일

<그림 13-3>⁴⁵⁾의 특징은 콘박스 라인의 이사도라⁴⁶⁾ 형태로 일자형의 스타일에서 조금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 딱딱하게 느껴지는 일자형에서 벗어나 아웃라인에 볼륨과 텍스처를 주어 소프트한 느낌과 자연스러움을 살린 스타일이다. <그림 13-4>⁴⁷⁾는 앞서 제자 김백봉선생의 대담에서 ‘선생님은 이마가 좁으셨어요’⁴⁸⁾ 라고 지적한 것처럼 이마의 행 라인을 보이지 않게 사선으로 자연스럽게 덮어서 오히려 좁은 이마를 커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웃라인은 턱 선이 드러나게 귀 선에 맞추어 가름한 얼굴 선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림 13-5>⁴⁹⁾의 스타일은 전체적으로 일자형 원랭스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왼쪽 선에 웨도우 웨이브를 넣어 오른쪽의 다소 밋밋한 헤어와 어울림에 있어 어색하지 않도록 자연스러움을 배려한 스타일이다. <그림 13-6>⁵⁰⁾은 왼쪽 파트는 이어 포인트 아래로 테이퍼(머리끝을 점차적으로 가늘게 하는 컷팅 기법)를 넣어 모발의 양을 가볍게 정리하여 자연스럽게 페이스 라인으로 떨어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왼쪽의 모발은 포워드 앤딩 (앞 방향 끝맺음 기법) 흐름으로 마무리하여 고정시킨 스타일로 조형성과 세련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최승희 단발 스타일을 분석 해 본 결과 신여성 무용가 최승희는 다소 길이감이 짧은 직선적인 모던한 단발 헤어스타일을 즐겨하였음을 알았다. 그러나 단발 헤어스타일은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형된 방법을 통해 전체적 이미지에 맞추어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최승희 단발 헤어스타일 이미지는 1930년대 구여성과 신여성이 공존했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매우 뛰어난 감각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던 걸로 등장한 그녀의 단발 헤어스타일은 근대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멋과 더불어 전통적인 이미지에 도전하는 서구적임을 느끼게 한다.

2. 눈과 입술을 강조한 메이크업

신여성 무용가 최승희의 메이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최승희의 용모에 대해 조택원(趙澤元, 1907~1976, 한국 신무용의 개척자)은 ‘눈이 크고 유난히 밝고 예리하며 코는 오뎅하고 입술은 정열을 머금은 듯이 매력적이

있었다’⁵¹⁾고 증언 하듯이 그녀의 외모가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출중했다고 한다.

한편 안제승(安濟承: 1922~1996, 무용학자, 최승희의 시동생)의 증언한 내용을 보면 “메이크업으로 얼굴을 일부러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저 아이셰도우 약간 칠하고, 분가루 바르고, 밑에 기초화장을 조금 하고 눈썹 그리는 거지, 요즘처럼 앞뒤로 음양을 그리고 그려진 않았어요.

그래서 해방 후 무대에 오를 때 그런 화장을 하게 되니까, 도깨비 화장 아니냐 그랬는데, 형수는 그런 화장 안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전래적인 귀태(貴態) 같은 게 있었어요.”⁵²⁾ 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의 증언에 의하면 최승희는 뛰어난 서구적 외모에 자신의 특성을 고려한 메이크업에 매우 뛰어났다고 생각된다.

얼굴의 메이크업이 잘 나타난 사진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4-1>, <그림 14-4>, <그림 14-5>는 흑백 사진이어서 컬러를 확인 할 수 없었고 <그림 14-2>, <그림 14-3>, <그림 14-6>은 컬러 사진으로 되어 있어서 컬러표현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4-1>⁵³⁾은 눈썹은 털을 깨끗이 밀고 연필로 가늘고 진하게 그려 전체적인 얼굴의 표정을 살렸다. 눈은 흑백과 명암의 차이를 주면서 큰 눈매를 뚜렷하게 하고 깊이감을 느끼게 하였다. 입술은 아주 선명한 빨간색 등으로 아웃라인을 강조하여 도톰하면서 윤곽선의 끝은 입술선보다 조금 더 늘려서 그렸다. <그림 14-2>⁵⁴⁾은 파운데이션은 깨끗한 하얀 피부를 최대한 살려 얇게 표현하였고 건강미를 주기 위해 붉은 다홍색의 볼터치를 했다. 코는 코벽을 따라 노즈셰도우로 음영을 살짝 주고 아이셰도우는 옅은 핑크색으로 쌍꺼풀 라인을 따라 퍼 발라 주었다. 입술은 짙은 붉은 색으로 강조하여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과 넓은 네크라인이 노출된 청록색 의상과 조화가 되어 깨끗한 흰 피부가 단연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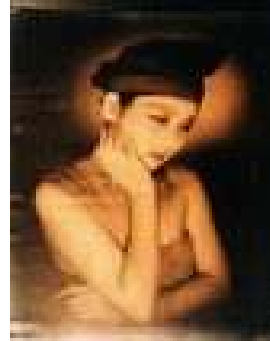
<그림 14-3>⁵⁵⁾은 피부 표현은 밝은 베이지톤으로 발라 투명감을 주고 아이라인은 다소 두껍게 그려 눈매를 강조하였고 아이셰도우는 전체적으로 눈두덩이에 짙은 색으로 음영을 주었다. 생각에 잠겨 있는



<그림 14-1> 포인트를 강조한
메이크업
-<http://cafe.daum.net/hcloveart>



<그림 14-2> 깨끗한 피부를 살려
청록색 의상과 조화된 메이크업
-<http://cafe.daum.net/hcloveart>



<그림 14-3> 에로틱한 메이크업
-<http://cafe.daum.net/hcloveart>



<그림 14-4>
조각한 듯한 옆모습 메이크업
-<http://cafe.daum.net/hcloveart>



<그림 14-5>
정면 모습의 메이크업
-<http://cafe.daum.net/hcloveart>



<그림 14-6>
동안(童顔)적인 큐트한 메이크업
-<http://cafe.daum.net/hcloveart>

<그림 14-1~6> 눈과 입술을 강조한 메이크업

듯 시선은 아래로 처리하여 에로티시즘한 고혹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 <그림 14-4>⁵⁶⁾는 눈썹은 가늘게 아치형으로 그렸으며 코 끝을 봉긋하게 하여 매끈한 콧등이 조각한 듯한 입체감을 주는 옆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림 14-5>⁵⁷⁾은 정면의 모습으로서 도통한 입술을 강조하고 비율과 균형이 잡힌 얼굴이 전체적으로 품격과 기품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4-6>⁵⁸⁾의 모습은 피부 색을 밝게 표현하여 아이쉐도우는 옅은 그린과 노란색으로 쌍꺼핀 부위에 포인트를 주고 눈두덩이에는 핑크색으로 펼쳐 발라주었다. 핑크빛이

감도는 붉은 색으로 T-존 가까이 둥글게 불러서하여 동안(童顔)적인 큐트함과 수줍음이 아우러진 모습이었다.

이와 같이 메이크업의 특징을 살펴 본 결과 최승희는 가름한 얼굴 윤곽에 높은 코, 쌍꺼풀진 큰 눈과 다소 서구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동양적인 얼굴선을 가지고 있었기에 피부색 표현은 밝은 베이지 톤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여 큰 눈매를 뚜렷하게 하면서 깊이감을 주어 신비스럽게 하고 입술은 아웃라인을 강조하여 붉은 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아하고 기품 있는 교양을 지닌 신여성 무용가 최승희는 일상 시에도 메이크업은 여성이 지녀야 할 품위와 예의라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아 그녀는 세련되고 고상한 품격을 유지하려는 의식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3. 아르데코 풍의 패션

최승희의 전성시대는 국제적으로 아르데코 양식이 유행하였던 시기로 시대적 상황과 함께 패션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미국과 유럽의 공연 등으로 신여



<그림 15-1> 1930년대 광고사진
-최승희崔承晞 격동의 시대를 살다간 무용가의 생애와 예술, p.315.



<그림 15-2> 1938년 미국으로 가는 배위에서
-최승희崔承晞 격동의 시대를 살다간 무용가의 생애와 예술, p.150.



<그림 15-3> 1935년 최승희 모습
-최승희崔承晞 격동의 시대를 살다간 무용가의 생애와 예술, p.127.



<그림 15-4> 1930년대 광고사진
-최승희崔承晞 격동의 시대를 살다간 무용가의 생애와 예술, p.313.



<그림 15-5> 1930년대 광고사진
-현대패션100년, p.135.



<그림 15-6> 1939년 파리에서
-최승희崔承晞 격동의시대를 살다간 무용가의 생애와 예술, p.157.

<그림 15-1~6 > 아르데코 풍의 패션

성 최승희는 1930년대 서구 패션에 부응하는 첨단 의 스타일을 연출하였으며, 모자 착용이 두드러짐이 보인다.

김백봉선생은 “평소엔 그냥 아무거나 막 입으셨어요. 외출할 때만, 그 당시 미국서 왔으니까, 독특한 모자도 쓰시고, 제가 손으로 만들어 드린 형겅 모자도 쓰시고 그랬죠. 나가실 때만 하이힐을 신으셨고⁵⁹⁾,” 라고 증언하듯이 당시의 첨단 유행의 리더로 보인다.

<그림 15-1>⁶⁰⁾의 원피스 차림은 전형적인 1930년대 아르데코 풍의 직선형 원피스를 착용한 모습이다. 원통형 실루엣 흐름의 네크 라인과 리무버블 커프스 끝부분과 벨트는 같은 조직과 형태로 포인트를 주고 허리선은 역시 하이 웨이스트로 아르데코 패션이 하이 웨이스트나 로 웨이스트가 특징이었던 것과 유사함을 보여주는 일체감과 통일감 있는 스타일 있다.

<그림 15-2>⁶¹⁾은 디테일이 풍성한 스타일로 부팡 슬리브 된 모피코트 안에 V-네크 라인으로 디자인된 부드러운 검정색 원피스 위에 코트를 걸쳐 입고 단추는 채우지 않고 멋스럽게 걸치고 있다. 머리에는 챙이 달린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있어 단발스타일과 잘 매치되고 있다. 또한 클러치 백과 검은 색의 스타킹을 착용하고 발등을 덮는 구두를 신고 있는 매우 럭셔리한 느낌의 모습이다. <그림 15-3>⁶²⁾은 1935년의 모습으로 라운드 칼라 사이에 코사지 장식된 롱 원피스를 입고 있는 모습이다. 허리 아래로 주름이 많아 풍성한 느낌이며 어깨를 감싸고 있는 대비되는 색채의 솔이 특징적으로 나타나 편안함과 엘레강스한 느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5-4>⁶³⁾와 <그림 15-5>⁶⁴⁾은 매우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느낌의 사진이다. 여름 패션으로 줄무늬가 있는 챙이 넓은 카플린 모자를 착용하고 팔 전체를 노출시킨 민소매 차림의 비치 웨어를 입은 모습이다. 당시로서는 매우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스타일로 보이거나 1930년대 아르데코 패션에서 이국적 취향과 함께 해변문화와 민소매, 선텐 등이 유행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아르데코 패션 감각을 취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5-6>⁶⁵⁾은 머리엔 베레를 쓰고 카울 드레

이프 네크 라인 칼라로 어깨가 강조된 된 긴 팔 원피스를 입은 정장풍의 모습이다. 단조로움을 피해 검은색 빅 벨트로 포인트 주어 미디 라인 아래 하이힐과 손에는 솔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위와 같이 최승희의 패션을 살펴본 결과 최승희는 단발머리에 특히 모자를 비롯하여 구두와 핸드백, 솔 등으로 토탈 코디네이션을 완벽히 구현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당시 유행이었던 아르데코 패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 또한 “어, 최승희다! 하고 보는 걸 희한해 할 정도가 되어야 인기가 나오는 거지, 언제나 볼 수 있고 언제나 만날 수 있으면 인기가 안 나온다⁶⁶⁾.” 라고 말한 것처럼 신여성 무용가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연히 구별 짓고 싶어 했던 프로페셔널함과 일반 대중들에게 여성 문화 창조의 리더가 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된다.

IV. 결론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당시의 사진 자료를 통해 무용가 최승희의 스타일을 살펴 보았다. 모던 걸의 중심에 있었던 최승희의 스타일은 크게 단발 스타일, 눈과 입술을 강조한 메이크 업, 아르데코 패션의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최승희의 단발은 직선의 심플함을 최대한 살려 조각한 듯한 입체감과 무게감이 절묘하게 느껴지는 원 렉스(One length) 스타일을 기본으로 고수하고 있었다. 옆가리마를 타고 정발체를 발라서 모발이 흐트러지지 않게 최대한 얼굴 라인 쪽으로 밀착시켜 광택과 윤기 나는 표면감을 주어 모던한 조형성을 표현한 도전적인 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딱딱하게 느껴지는 일자형에서 벗어나 아웃 라인에 볼륨과 텍스처를 주어 부드러운 느낌과 자연스러움을 살려 이사도라 형태로 변화를 주어 턱 선이 드러나게 이어 라인에 맞추어진 단발 아웃 라인은 가름한 얼굴선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등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단발 스타일을 상황과 이미지에 맞도록 세심한 스타일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메이크업은 동양적인 얼굴선을 가지고 있는 최승희는 피부색 표현은 밝은 베이지톤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했으며 눈썹은 가늘고 진하게 그려 전체적인 얼굴의 표정을 살렸다. 눈은 흑백과 명암의 차이를 주면서 큰 눈매를 뚜렷하게 깊이감이 있게 표현하여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더 했고 입술은 윤곽선의 끝을 본래의 입술선 보다 더 늘려서 그려 아웃라인을 강하게 선명한 빨간 색 등으로 포인트를 주는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최승희는 한국여성으로서 인위적이 아닌 균형 잡힌 얼굴에 한국 고유의 멋과 아름다움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기품과 품격이 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승희의 패션은 당시 서구 사회의 개방적인 패션 흐름과 기능성을 단순함을 강조한 아르데코 풍 뿐 아니라 직선형 실루엣이 주를 이루며 기능적이며 모던하게 디자인된 고급스런 의상을 때와 상황에 맞도록 스타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장과 구두와 핸드백, 슀 등으로 특히 다양한 모자들을 착용하여 디테일이 풍성한 코디네이션을 하였다. 흑백의 대비조화를 의상에 매치하여 패션 스타일을 극대화시켰고 자신의 정체감 있는 스타일을 고수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이상과 같이 무용가 최승희의 스타일을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패션 중심으로 분석 해 본 결과 최승희는 현대 한국의 매우 혁신적인 신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이미지는 모던하고 진보적인 동시에 국제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용을 통한 국제적인 감각과 시대를 앞섰던 최승희는 그 시대의 현실을 초월하여 우리나라 대표적 신여성의 첨단으로 이해 할 수 있었다.

그동안 사상적, 이념적 문제로 최승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오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한국 신여성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자료만이 남아 있어 그 내용을 심도 있게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무용학, 여성학, 사회학과 연계된 융합적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충실한 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유미희(2006), *20세기 마지막 페미니스트 최승희*, 민속원, pp.60-61.
- 2) 최혜실(2000),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pp.165-168.
- 3) 이애순(2002), 최승희무용예술전집, 국악자료원
- 4) 유미희, op. cit., pp.118-127.
- 5) 김채원(2008), *최승희의 춤*, 민속원
- 6) 임영자, 박유신(2000), "최승희 무용의상의 특성과 현대패션과의 상관성", *복식문화연구*, 8(5), pp.638-647.
- 7) 최혜실, op. cit. pp.61-87.
- 8) 이옥진(1979), "여성잡지를 통해 본 여권 신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p.54.
- 9) "신여자 1920년 3월 창간호 표지"-*이옥진* (1979), p.54.
- 10) 자료검색일 2009. 11. 30, 자료출처 http://www.kmpa.or.kr/museum/mu_search/detail_list.asp?search_kind=subject&search_text=%BD%C5%BF%A9%BC%BA&category=all&from_date=&to_date=&x=16&y=12
- 11) 윤영옥(2005), "1920~30년대 여성"잡지에 나타난 신여성 개념의 의미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의", *국어문학지*, 40, p.206.
- 12) 김미란(2007), "1920년대 여성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39.
- 13) 최혜실, op. cit., p.186.
- 14) 조규화 (1995), *복식사전*, 경춘사, p.175.
모던 걸(영: Modern girl 일:모던가-르): 현대 여성, 멋쟁이 여자란 의미로 개화기에서 1907년 이전에 일어에서 전래 되어 사용 됨.
- 15) 신여자 선언: 1920년 신여성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원주(일엽)가 '신여자'를 창간하고 '신 여자선언'을 게재하면서 신여성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나혜석, 최승희, 윤심덕, 김명순 등 근대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한다. 가부장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개인을 억압하는 인습이나 제도에 반기를 들었

- 던 이들은 자유로운 연애와 결혼, 이혼에 진취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대부분 사회의 극심한 저항으로 개인적으로 불행한 삶을 산다.
자료검색일 2010. 02. 20, 자료출처 http://lawhome.or.kr/library/library_view.asp?no=7
- 16) 최혜실, op. cit., pp.179-182.
- 17) 임윤정(2003), “근대여성사적 측면에서 본 단발의 사회적 인식 변화”, 동아대학교 의상 섬유학과 석사학위 논문, p.17-18.
- 18) 자료검색일 2010. 01. 30, 자료출처 <http://search.nate.com/search/all.html?q=&s=&sc=&afc=&j=&thr=frs&q=%B1%E8%B8%B6%B8%AE%BE%C6>
- 19) 자료검색일 2010. 01. 30, 자료출처 -<http://search.nate.com/search/all.html?q=A&s=&tq=&sc=&afc=&thr=sbus&q=%C8%B2%BF%A1%BD%BA%C5%CD>
- 20) 자료검색일 2010. 01. 30, 자료출처 <http://koreandb.nate.com/history/people/detail?sn=8321>
- 21) 최혜실, op. cit., p.183.
- 22) 금기숙 외(2002), *현대패션100년*, 조문사, pp. 135-136.
- 23) 김미선(2005), “1920~30년대 ‘신식’화장담론이 구성한 신여성에 관한 여성주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40-41.
- 24) 이윤희(2007), “한국 근대 여성잡지의 표지화를 통해 본 여성 이미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55.
- 25) 김채원(2008), *최승희의 춤*, 민속원, pp.99-103.
- 26) 김경애, 김채현, 이종호(2001), *우리무용100년*, 현암사, p.55.
- 27) 정수웅(2004), *최승희崔承禧 격동의 시대를 살다간 무용가의 생애와 예술*, 눈빛, p.22.
- 28) 유미희, op. cit., pp.118-127.
- 29) 유현진(2002), “최승희의 무용 예술행적과 본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8.
- 30) 김경애, 김채현, 이종호, op. cit., pp.76-77.
- 31) 박유신(1999), “최승희 무용의상”, *서일대 논문집*, 17. p.580.
- 32) 정수웅, op. cit., p.18.
- 33) 정수웅, op. cit., p.304.
- 34) 정수웅, op. cit., p.305.
- 35) 정수웅, op. cit., p.341.
- 대담: 안제승, 김백봉 최승희를 말한다. 대담: 정리 정수웅
안제승(安濟承): 무용학자, 1922년 출생, 경희대 무용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대한무용학회 회장을 지냈다. 안막의 친동생으로 안막·최승희 부부의 주선으로 김백봉과 결혼했다. 1996년 작고.
김백봉(金白峰):원로 무용가, 1927년 평양 기양에서 출생했다. 최승희로부터 춤을 사사했고, 해방 후 북한에서 최승희무용연구소의 조교로 있었다. 경희대 무용학과 교수를 지냈고, 한국무용협회 지정 명무<부채춤>을 안무했다, 최승희의 직계제자이며 동서간이기도 하다.
정수웅(鄭秀雍): 한국의 '다큐멘터리스트'로 불리는 베테랑 다큐 감독이다. 연세대 영상대학원 겸임교수 재직 하고 있고, 최근엔 최승희 조명 작업과 관련해 김백봉충보존회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 36) 아르데코(Art Deco): 1925년 프랑스 국제장식미술관에서 개최되었던 '장식미술국제박람회(L'Exposition Internationale des Arts Decoratifs)'와 관련하여 명칭이 유래,
- 37) AMY DE LA HAYE(1998), *FASHION SOURCE BOOK*, New Jersey: AQUARTO BOOK, p.53.
- 38) Ibid., p.55.
- 39) JOHN PEACOCK(1993), *20th Century Fashion*,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p.69.
- 40) 자료검색일 2009. 11. 01, 자료출처 www.accf.or.kr
- 41) 자료검색일 2009. 11. 01, 자료출처 <http://cafe.daum.net/hcloveart>
- 42) 자료검색일 2009. 11. 01, 자료출처 <http://cafe.daum.net/hcloveart>
- 43) 자료검색일 2009. 11. 20, 자료출처 <http://cafe>

- .daum.net/hcloveart
- 44) 자료검색일 2009. 11. 20, 자료출처 <http://cafe.daum.net/hcloveart>
- 45) 자료검색일 2009. 11. 20, 자료출처 <http://cafe.daum.net/hcloveart>
- 46) 이사도라(Isadora) 컷:, 원 랭스 컷 의 일종의 하나임, 앞이 짧고 뒤가 길어진 전체적으로 동
- 근 모양의 형태를 말함: 
- 47) 자료검색일 2009. 11. 20, 자료출처 <http://cafe.daum.net/hcloveart>
- 48) 정수웅, op. cit., p.340.
- 49) 자료검색일 2009. 11. 20, 자료출처 <http://cafe.daum.net/hcloveart>
- 50) 자료검색일 2009. 11. 20, 자료출처 <http://cafe.daum.net/hcloveart>
- 51) (사)무용가최승희기념사업회(2009. 11. 04), “다시 최승희를 말한다”, *2009 무용가 최승 희춤 축제 국제포럼*, p.61.
- 52) 정수웅, op. cit. p.341.

- 53) 자료검색일 2010. 01. 20, 자료출처 <http://cafe.daum.net/hcloveart>
- 54) 자료검색일 2010. 01. 20, 자료출처 <http://cafe.daum.net/hcloveart>
- 55) 자료검색일 2010. 01. 20, 자료출처 <http://cafe.daum.net/hcloveart>
- 56) 자료검색일 2010. 01. 20, 자료출처 <http://cafe.daum.net/hcloveart>
- 57) 자료검색일 2010. 01. 20, 자료출처 <http://cafe.daum.net/hcloveart>
- 58) 자료검색일 2010. 01. 20, 자료출처 <http://cafe.daum.net/hcloveart>
- 59) 정수웅, op. cit., p.341.
- 60) 정수웅, op. cit., p.315.
- 61) 정수웅, op. cit., p.150.
- 62) 정수웅, op. cit., p.126.
- 63) 정수웅, op. cit., p.313.
- 64) 금기숙 외(2002), op. cit., p.135.
- 65) 정수웅, op. cit., p.157.

접수일(2010년 5월 25일)

수정일(1차 : 2010년 7월 28일)

게재확정일(2010년 8월 2일)